

“제주 본향당 이야기”

-눈미 불뚫당-

1. 채록대상자 : 이용옥/조천읍 와산리 불뚫당 메인 심방
2. 채록 일자 : 2017.04.24

이 당은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, 조천에서 올라서는 중산간에 있는 옛날에 눈미 와산입니다 여기서. 이 당의 유래는 옛날옛날 옥황상제말뚝돌 아기가 아방 눈에 골리나고 어명눈에 싯지나난, 용 그려진 용얼레기 새 그려진 새쟁빔,

그걸로 허울허울 빗언 갑싸댕기들영 새강머리를 따완 결혼을 안하니까 총각머리로, 남방사주 저고리에 북방사주 말바지에 열두폭 대홍대단 홀단치마에 나막창신 신영, 외코 접영 백룡 보선에 겐 신언.

인간에 가렘ㅎ난 옥황에서 아 어딜 가면 인간에 내가 가서 좌정할만한 데가 이신고 옥황에서 이렇게 굽어보니까 이 눈미와산 저 당오름 오름에 거기 보니까 방아터도 좋아지고 태역 단풍도 좋아지고 아 내가 저기 내려사면 좌정할 만ㅎ다 ㅎ연, 3월 열사 흘날 옥황에서 저 당오름으로 내려산 중허릴 돌단 보니까 상상봉에 좋은 자리가 있는 거라 예. 그 자리에 할마님은 딱 내려산 앉으난 아 처음 내려사신디 이거 어느 자손에 강 상단골을 무어야 내가 여기 온 줄도 알고 내가 있는 줄을 알건데 어딜가코 헨 이렇게 할머니가 짚어보니까, 내생이 무근가름이엔 ㅎ건 이 와산 올라오기 전에 또 와산은 와산 안넨데 마을이 있었나봐요 게.

그 마을에 김상장 집 따님애기가 이십스물 삼십서른이 되연 사십 마흔이 다 돼가는디, 자식이 어선 아들도 웃고 딸도 웃고 ㅎ난 뭐 재산은 좋안 남단 북단 너른 받도 좋고, 고대광실 높은 집도 좋아지고, 경해도 애기가 어선 막 호호 탄복험시난

그 날 밤에 할머니가 꿈에 선몽을 하기를, 야 너 김상장 집 따님애기 아닐러냐 너 아무리 잘 살아도 남녀간에 후세 전승시킬 자손이 없어서 너 지금 호호 탄복하고 있질 않으나, 이날이 붉는 데로 널 아침에랑 언메 단메 백돌레나 백시리나 청감주나 미나리 청근채나 계란안주나 다 맑은 음식이라예 그런거를 해서 저 ‘당오름’ 상상봉을 돌당 보아라 난데없는 은진미륵이 있을테니

나에게 와서 수룩을 드러보면 석달 열흘 백일이 채 못뉘메 너가 알아볼 도리가 있으리라 해연 꿈에 선몽을 하난. 아 그 김상장 집 따님애긴 퍼뜩 깨난 보난 꿈이라. 예 할마니가 선몽한대로 깨는 즉시 무신 그냥 집에서만 출리젠ㅎ난 쌀밥해놓고, 계란 언메 단메 해놓고 미나리 해단 채소해놓고 계랄 삶아놓고, 감주 확 해놓고 ㅎ연 그는 대서 대구덕에 낵 지연 당오름을 올라간거라,

올라간 중허리로 빙 하계 돌단보난 아이 상상봉에 이 은진미륵이 이신거라 예. 게

난 이제 자기 출렁 간걸 문밖 내려난 수록드런 자기 혼자만 막 수록 드러될 내려와신디 진짜로 백일이 채 안되매 포태가 된거라. 겐 애기 벤게 아홉 열둘 받은 들은 뉘난 배는 이만큼 하고 아이고 이제랑 내가 치세수록으로 애기 나기전에 한번 강 고맙수뉘한 수록을 드러될 오주 겐 ㅎ연

또 이제 문밖 그대로 메 해놓고 다 출런 7는대구덕에 낱 지어아전 '당오름'을 올라서젠 ㅎ난, 배가 너무 붙어놓으난 앞동산은 높고 뒤에 짐은 뒷동산은 얇고 가진 건 이렇게 막 자자아져분거라예. 게난 막 네팔손으로 기영 올라간거라 오름이어부난 겐 올라간 할마님한테 수록은 드러될 내려오멍 ㅎ는말이, 아이고 영급좋은 할마님아 수덕좋은 할마님아 울로 요만큼 '고장남밭'이엔 ㅎ는건 지금 이 자리라예. 여기가 고장남밭 요, 고장남밭디로 나왕 좌정해시민 이내 몸도 오고가기가 편안한 좋을걸 오젠 ㅎ난 할마님 앞동산은 높아지고 뒷동산은 야자완 나 니팔손으로 기영완 감수다 양. 자기 혼자만 중얼중얼 해여된, 아 집에 온게 그날 밤엔 비가 그냥 대우박 수천리로 쏟아진거라 예, 하늘과 땅이 맞붙을 정도로 비가 쏟아지는데 벼락 천둥소리가 와당탕 와당탕 ㅎ멍 ㅎ난 그 벼락천둥 소리에 할머니가 아까 새통물머리 그디 이름이 '새통물머리'라 예, 그디 간 쉬언 마음돌에 마음 씻고 시름돌에 시름 쉬어아전 걸사 한번 쉬언 이젠 여길 왕 좌정을 한거라.

게난 김상장집 따님애긴 아 어젯밤엔 무슨 벼락천둥소리가 그추룩 나시고 ㅎ난 무신 비가 그추룩 하늘광 땅이 맞붙으게 와신고 해연, 에 한번 영 당오름이나 고장남밭이나 돌아보주 긴 ㅎ연 이리 왕보난 그 당오름 상상봉에 있었던 은진미륵이 여기 와이신거라예,

“아이고 영급좋은 할마님아 수덕좋은 할마님아 참 할마님 실력이 좋수뉘” ㅎ연. 그 후로부터 이 할마님이 동수문밭 서수문밭 특히나 애기엇인 사람들, 요즘에 아들딸 구별 안함주만 예전엔 아들 아들 아들 엇영 하는 예. 그런분들 왕 수록 올령가면 아들도 날게 해주고 애기 잘 크지못행 막 하는 이런디도 할마님신디 왔다가면 애기도 잘 크게 ㅎ곡 게난,

할마님은 옛날은 그 저 골목에 들어오기 전에 쭉 한 한질이 이 정의더레 가젠 ㅎ민 웃한질인 생이라예. 게난 말탄 양반도 글로 말을 탕 왕강 왕강 하당도 이 당더레 들어오는 골목에 오면 그 말을 하멜을 안하면 말발이 절어붙게 해 할마니가. 육지장사 댕기는 포목장사나 도보상기들 열레기 챙빋 낱 실 낱 파는 사람이나 포목장사들도 넘어가젠 ㅎ민 우선 할마님신디 왕 그 올감상 실감상 다 풀영 감상을 행 가면 그 장사가 잘되고 경 안하민 망하게 하고. 게난 할마니는 정월 3월 열사흘날은 할마니가 옥황에서 내려왔덴 해영 큰 제일을 하젠 ㅎ민, 저디 강 아까 '새통물머리'강 상 한상 차려낱 거기서 삼석 치명 삼석 때리명 연물 두들명 이까지 오는거라예. 옛날 구기덩덩 할 때는 당끼절끼들렁 이 와산 가름을 다 돌아그네 이디왕 굿 시작을 했던 험디다게. 게난 이제 할마니 본풀이는

또 칠월칠석날은 불도 할마니이기 때문에 다른 당들은 칠월되면 이제 무슨 제의를 하는데 이 할머니는 칠석 제일을 하는거라. 경 해연 백중제를 다른 당들은 대부분 하

는데 이 당은 칠석날 제일을 하고 견우직녀 만나는 거랜 하곡. 또 동짓달 열사흘날 이때는 시만국제일. 자손들이 계난 옛날에는 시월달에 했던 핸디 이젠 옛날엔 농사만 지을때난 시월달 되민 다 곡식 거두어 낱 곡식 위로 그거 거렁 할마니신디 떡 한 낱 단 와나신디,

이젠 미강들 해영 다 미강에다 던어주단 보민 시월달에 사람을 구경 못하는거라예, 계문 동짓달 열사흘날은 그날은 또 할마님 시만국제일이엔 해연 할머니는 1년에 세 번 상을 받습니다. 계난 할마니 본풀이는 이건디 할머니는 눈미와산은 고장남밭 좌정한 '제석불도할머니' 너던넛디에 저기 돌맹이 하나 있지 예 저기도 귀라 저 제일날은 저거도 들러도그네 하는디 저랜 또 바구니에들 다 출령 옵니다. 계난 저기는 '할로산 또놀래왓치 풍내왓치' 할로산또라 거기는예 행, 또 당 뒤에는 산신이 있댕 해여. 산신이 있댕 해영 대부분 웃드르들은 산신놀이들 예 산신이 있고 이 당의 본풀이는 그거고.